

## 커뮤니티 기반 생태관광의 연구: 멕시코 유카탄을 사례로<sup>\*,\*\*</sup>

김 희 순  
단독/서울대학교

Kim, Heesoon (2011), A Study on Community Based Ecotourism: A Case of Yucatán in Mexico.

**Abstract** This study firstly reviews the definition and significance of ecotourism. It also investigates the significance of the community based ecotourism by considering the emergence of the community-centered development strategy. It further looks into the role, significance, and problem of tourism players in the process of implementation of community based ecotourism based on the experience of ecotourism in the northern peninsular of Yucatán in Mexico.

The concept of ecotourism was suggested from the development process of Yucatán peninsular in Mexico in 1980s. It is argued that the ecotourism can satisfy the two goals of the creation of social and economic revenues for the community and the natural environment preservation. The ecotourism is focused on natural regions and customer's satisfaction. It also centers on education, environment preservation, and cultural respect. The significance of ecotourism includes responsible tourism for the tourists and regional resident's participation to tourism in the perspective of economy, environment and society.

The wild creature management led by government was failed and new and innovative preservation policy was required. The policy was called as community based natural resource management or community preservation area. Such a policy assumes that providing the benefit for production community is connected to the preservation. In the effect of neoliberalism, most developing countries experienced retreat of government role and regional communities realized the responsibility for restoration of local life environment.

---

\* 이 논문은 2008년 정부(교육과학기술부)의 재원으로 한국연구재단의 지원을 받아 수행된 연구임(NRF-2008-362-B00015).

\*\* 이 논문은 2010년 12월 경희대학교에서 개최된 한국라틴아메리카학회 동계학술대회의 발표 논문을 수정한 것임.

Thus, the community based ecotourism was emerged as an alternative of existing models.

The programs of ecotourism of northern Yucatán in Mexico include Pac-chen village for original residents, historic sites of Mayan culture, and tropical forest as tourism attraction. The practical implementing subjects of that program were tourism company, guides, and participant residents for supporting tourists. The tourists were foreigners from developed countries.

**Key words** ecotourism, community based ecotourism, community-centered development, environment preservation, Yucatán  
 생태관광, 커뮤니티기반 생태관광, 커뮤니티기반 발전, 환경보전, 유카탄

## I. 서론

지난 세기 동안 국립공원으로 대표되는 자연보호제도는 정부가 중심주체가 되어 시행되었다.<sup>1)</sup> 정부 중심의 보호 제도는 대부분 국립공원, 금렵구역, 야생동물 보호구역 등과 같이 지역 공동체를 야생동물로부터 격리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하였으며 자연보호구역 내에서의 원주민들의 목재 벌채, 광산

---

1) 국립공원의 개념은 1823년 인류학자이자 화가인 조지 캐틀린이 서부 미개척지에 대하여 “자연의 아름다움이 살아 숨쉬는 신선한 야생지대에서 사람과 동물이 함께 어우러질 수 있는 국가적 차원의 공원”으로 제시하였다. 이후 John Muir(1838-1914) 등의 노력에 힘입어 1864년 요세미티 계곡과 인근 세쿼이아 숲이 캘리포니아 주 관할로 이전되어 휴양지화하였으며, 1872년 옐로우스톤이 최초의 국립공원으로 지정되었다. 1916년 미국 내무부 산하에 National Park Service가 설치되면서 국립공원은 제도로서 정착되었고 이후 전세계에 유사하고 다양한 개념으로 분화되어 전파되었다.

국립공원 제도는 이후 ‘미국이 낳은 최고의 아이디어’ 라는 평과 함께 전세계의 자연보호 제도의 시초가 되었으며 천연생태계를 보호한다는 면에서는 그 장점이 인정되고 있다. 그러나 그 시행과정에서 개발 대 보전을 양분함으로써 여러 면에서 단점이 지적되고 있다. 특히 자연의 보호를 위하여 지정 구역 내의 주민들을 이주시키거나 경제활동을 제한하는 점에 대한 비판이 일고 있다. 국립공원의 제도화를 이끌었으며 현재까지도 미국의 유력한 환경보호단체인 Sierra Club의 경우 Hetch Hetchy Reservoir 사건에서 나타난 것처럼 인간 대 자연에서는 자연을 우선시하는 경향을 보이며, 중산층의 백인 중심의 보수적인 성향을 지녀왔다. 이러한 인간 대 자연에서 인간보다 자연을 우선시하는 국립공원의 원칙은 수많은 지역, 특히 개발도상국에서 국립공원 및 유사제도의 실행 과정에서 원주민과 국립공원간의 마찰을 빚어 왔다.

업, 화전 등과 같은 자연과파괴적인 경제활동을 제약하였다. 국립공원은 인간, 특히 지역 원주민을 배제함으로써 ‘이익은 원거리 거주 부유층이, 불이익은 근거리의 빈곤층이 받는다’, ‘사람은 몰아내고 동물은 구한다’는 등의 비난이 일고 있으며, 인위적으로 보존된 자연이 과연 진정성이 있는지에 대한 근본적인 문제점을 지적받아 왔다. 그 결과 최근 개발도상국을 중심으로 국립공원 해체인 de-gazetting<sup>2)</sup>이 일어나는 예가 발생하고 있으며, 대부분 원주민의 생존권과 국립공원 보전정책 간의 갈등에서 비롯된 것이다.

지역 주민을 배제하는 형태의 자연보호제도는 많은 경우 주민들에게 적개심을 유발하였고 보호구역으로부터 내몰린 공동체 구성원에 의한 밀렵 및 벌목이 횡횡함으로써 애초에 의도한 자연보호의 목적을 달성하지 못하기도 하였다. 보호구역의 지정으로 경제활동이 제약됨으로써 경작 가능한 농지가 줄어들고 고용기회가 감소하게 되며 이는 결국 촌락민들에게 자연보호구역 내 자연자원의 채굴에 대한 유혹을 증대시키고 있다(Brenner and Job 2006).

생태학적인 시각에서도 정부가 주도하는 야생생물 관리가 만족스런 결과를 내지 못하고 유지 비용 또한 매우 높게 나타나자 새롭고도 혁신적인 보전 정책이 제시되었는데, 소위 ‘커뮤니티 기반의 자연 자원 관리’ 혹은 커뮤니티 보호구역이라 불리는 새로운 보전 정책들은 기존의 경우처럼 자연보호와 관련하여 촌락 공동체를 내치는 것이 아니라 촌락 공동체와 협조하는 방식이다. 새로운 자연보호제도의 핵심은 ‘(지역) 생산 공동체’에게 이윤을 제공하는 것이 결과적으로 자연의 보전으로 이어진다는 것이다(Dzingirai 2003, 445-446).

라틴아메리카의 경우 1980년대 초반 신자유주의정책으로의 선회 이후 자원생산기지로서의 역할이 증대되고 있다. 이로 인해 라틴아메리카 생태계의 보전과 개발이 국제적, 국가적 차원의 주요한 문제로 대두되었으며 자원의

2) de-gazetting이란 최근 생성된 신조어로, 관보에 게재하지 않는다는 뜻이다. 국립공원이 더 이상 관의 영향을 받지 않는 상태가 되었음을, 즉 국립공원으로부터 해제되었음을 의미한다.

개발 및 보전 과정에서 발생하는 지역주민의 경제적 희생 혹은 그들로 인한 생태계의 파괴현상 또한 간과할 수 없는 문제로 대두되고 있고, 나아가 원주민 및 원주민 공동체의 문제로까지 확대되었다.

이에 1990년대 이후 생태관광이 정부 중심의 보전정책으로 인한 문제와 낙후된 촌락 지역의 개발문제에 대한 해결책으로 제시되고 있다. 생태관광은 풍부한 자연자원과 원주민 문화의 개발과 보전의 문제에 대하여 개발을 추진하면서 보전을 추구할 수 있는 대안이며, 원주민 사회에 실질적인 경제적 도움을 줄 수 있는 수단으로 인식되고 있다(Zeppel 2006, 68).

본 연구에서는 생태관광의 개념과 의의를 살펴본 이후, 개발도상국가의 개발전략에서 커뮤니티의 개념이 중요하게 떠오른 과정과 그 과정에서의 커뮤니티 기반의 생태관광의 역할에 대하여 살펴보고자 한다. 또한 1990년대 초반 생태관광 개념의 발상지인 유카탄 지역에서 개발된 초기 형태의 커뮤니티 기반 생태관광의 사례를 통하여 생태관광의 장점과 단점을 살펴보고자 한다. 사례조사는 2010년 10월 말 멕시코 유카탄 반도의 팍첸(Pac-chen) 마을에서 실시하였다.

## II. 생태관광의 정의와 의의

### 1. 생태관광의 정의

생태관광은 선진국의 관광시장에서 나타나고 있는 주요한 포스트 모더니즘적 조류인 ‘틈새 관광(niche tourism)’의 한 형태이다. 틈새관광이란 매우 특징적인 장소자산을 바탕으로 특정 관광소비계층을 겨냥하여 소규모로 이루어지는 관광형태로, 최근 선진국소비자들이 점점 더 많은 가치와 의미를 끌어낼 수 있는 장소자산을 소비하고자 함에 따라 대두되었으며 소비가 생산에 발맞추지 않고 생산을 조절하게 되는 포스트포디즘 체제로 변화하게 됨에 따라 대두된 것이다(류주현 2008). 생태관광은 소규모 관광시장을 겨냥한 비교적 특수한 형태의 관광상품으로 이를 강조한 Wheeler(1994)는

‘egotourism’이라 칭하기도 하였다(Forsyth 1997, 272).

‘생태관광(ecotourism)’이란 용어는 1983년 멕시코 도시생태개발부 기술 표준국장인 Ceballos-Lascurain이 홍학(American Flamingo)의 번식지인 유카탄 반도의 북부 습지를 보호하기 위하여 셀레스톤 강 하구의 해변 개발계획에 반대운동을 전개하며 처음으로 사용하였다. 환경단체 PRONATURA의 회원으로 환경보호주의자였던 Ceballos-Lascurain은 유카탄 반도의 해양 관광 단지의 건설로 인해 홍학 군락지가 파괴되는 것을 반대하며 생태관광이라는 용어를 사용하였다(최재우 2001, 60). 그가 초기 주장한 생태관광이란 ‘자연 풍광과 야생 동·식물 생태계를 감상하기 위하여, 훼손되지 않은 자연지역에서 진행되는 관광’이었다. 그는 또한 ‘생태관광의 환경보전 교육의 역할’을 강조하였으며, 환경 및 생태계 보전이 지역주민에게 불이익만을 강요하는 일방적인 가치가 아님을 역설하였다. 나아가 생태관광이라는 개념을 통하여 지역사회의 사회적, 경제적 편익의 창출과 자연환경의 보전이라는 두 가지 목표를 모두 만족시킬 수 있음을 설명하였다(문창현 2006).

그러나 생태관광에 대한 최초의 언급은 1965년 Hetzer가 ‘Links’라는 잡지에 관광이 개발도상국에 미치는 영향을 비평하는 글에서 그 대안으로 제안한 “생태적 관광(ecological tourism)”으로까지 거슬러 올라간다. 1970년대 초반 환경적으로 혹은 사회적으로 부정적인 영향을 발생시키지 않는 소비행위를 추구하는 ‘윤리적 소비(ethical consumerism)’의 개념이 대두되었고 이 개념은 1980년대 공해, 지구 온난화, 오존층 파괴 현상 등에 대한 경각심의 증대와 함께 급속도로 퍼져나갔다. 소비자들의 환경 및 사회적 윤리의식의 제고는 환경 친화적인 상품과 윤리적으로 바람직하게 생산된 제품에 대한 선호로 이어졌으며 이러한 소비 환경의 변화는 기업들이 친환경적인 자기 규제를 실시하도록 하게 하였다(Forsyth 1997, 271-272).

관광분야에서는 1990년대 환경적으로나 사회적으로 부정적인 영향이 없는 ‘지속가능한 관광’의 개념이 대두되었으며 이는 대중관광이나 틈새관광을 구분하지 않고 해당 사회에 지속적인 이윤을 보장하는 산업으로 정의되

었다. 1990년대 들어 생태관광에 대한 정의 및 인식의 정립이 이루어지기도 이전에 전세계적으로 생태관광에 대한 수요가 급증하고 생태관광시장이 급성장하였으며, 이에 여러 학자들이 기존의 자연관광, 녹색관광, 대안관광, 지속가능한 관광 등에 대하여 생태관광이 갖는 차별성과 그 파생효과에 주목하여 생태관광에 대한 다양한 정의를 내렸다(Shoup 1898; Alder 1990; Sadler 1990; Kusler 1991; Wallace 1991; Valentine 1992; Buckley 1994; Chalker 1994; Goodwin 1996; Fennell 1999; Weaver 2001). 이들의 정의를 종합하면, 생태관광이란, 첫째, 비교적 훼손되지 않은 자연지역을 기반으로 하는 야생생태계와 지역문화자원을 관광대상으로 하는 여행이며, 둘째, 환경보전과 지역주민의 사회적, 경제적 복리 증진을 추구하는 관광이고, 셋째, 환경적, 생태적으로 세심하게 통제되고 책임이 수반되는 관광이다(오수경 2004, 58-61).

생태관광 시장이 급속히 성장하고 생태관광이 환경의 보전과 개발도상국의 빈곤상황의 개선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평가됨에 따라 유엔은 2002년을 '세계 생태관광의 해(The International Year of Ecotourism)'로 선언하여 생태관광에 대한 제도를 정비하고 개선하고자 하였다. 2002년 UN의 후원 하에 열린 '생태관광에 관한 퀘벡 선언'에서는 생태관광은 기본적으로 관광의 경제적·사회적·환경적 영향력을 고려하는 지속가능한 관광이어야 하나 광의의 지속가능한 관광과는 차별화된 것이라고 하였다. 선언에 의하면 생태관광은 자연 및 문화 유산의 보전에 실질적으로 기여하여야 하며, 관광의 계획·개발·실행 과정에서 지역 및 원주민 커뮤니티의 참여가 이루어져야 하고 그들의 복지에 기여하여야 한다. 또한 방문자들에게 방문 지역의 자연 및 문화 유산에 관하여 해설을 제공하여야 하며 독립적인 여행자를 비롯한 적은 규모의 여행객들로 구성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하였다. 특히 이 선언서에서는 생태관광에서는 사회적·환경적 목적의 소규모 내지는 영세규모의 기업들이 핵심 파트너가 되어야 하며 이들은 생태관광에 관하여 적절한 금융 및 마케팅 지원이 이루어지지 않은 환경에서 일하게 될 것이라고 하였다. 선언서는 또한 여행자 자신이 여행하는 지역의 지속가능성

에 대한 특별한 책임감을 가져야함을 역설하였다(World Tourism Organization 2003: Uddhammar 2006, 659에서 재인용).

즉, 생태관광은, 첫째, 생태관광의 관광의 형태를 지녀야 하며, 둘째, 관광 매력물은 주로 자연에 기반하되 연계된 문화적 자원 및 영향력을 이에 포함할 수 있어야 하며, 셋째, 교육적인 학습 효과가 장려되어야 하고, 넷째, 생태적 지속가능성의 관점에서 생물 중심적이고 동시에 사회적, 문화적 측면에서 인간 중심적이어야 한다. 이에 더하여 운영상의 재정적 지속가능성이 고려되어야 한다(Weaver 2001).

## 2. 생태관광의 의의

생태관광은 자연을 주요 관광대상으로 한다는 점에서 자연 관광(nature based tourism)과 혼동되기도 한다. 이에 대해 호주 생태관광협회에서는 자연관광과 생태관광의 개념 간의 차이에 대해 밝히고 있는데, 우선 자연관광은 생태관광과 달리 방문객에 대한 교육과 관찰의 기회가 없고 환경보전에 공헌하는 바가 없으며 지역사회를 유지하고자 하는 측면이 없어 지역주민과 함께 하지 못하는 관광으로, 주로 자연지역에서 이루어지는 관광으로 정의하고 있다. 이에 비해 생태관광은 자연지역에 초점을 두고 고객만족에 중점을 두면서도 교육적이며, 환경보전에 공헌하고 문화적 경외감을 가지며 지역주민과 함께 하는 관광으로 경제적 이익 뿐 아니라 환경적, 사회적 측면까지도 고려하는 책임 있는 관광으로 규정하고 있다(최재우 2006). 이에 생태관광의 의의는 크게 환경보전적인 면과 경제적인 면, 교육적인 면으로 나누어 생각할 수 있다.

첫째, 환경보전적인 측면은, 생태관광이 해당 지역에 대한 환경적, 문화적 영향력을 최소화하는 것을 그 목표로 하는 관광형태이므로 가장 기본적인 내용이라 할 수 있다. 생태관광에서 제시하는 환경보전은 정부가 자연자원을 법으로 규제하여 보호하고, 지역주민은 환경교육을 받고 난 후 안내를 해야 하며, 관광객에게는 환경보호를 위한 많은 실천강령을 숙지하도록 함으



로써 이루어진다. 이로 통한 생태관광의 환경 보전 효과로는 첫째, 주민들의 자연파괴적 행위를 방지할 수 있고, 둘째, 주민들로 하여금 자연을 보전하도록 노력하게 할 수 있으며, 셋째, 주민 반대로 불가능하던 보호구역을 지정함으로써 미래의 개발 압력으로부터 자연을 보호하고 관리계획을 수립할 수 있고, 넷째, 생태관광을 통한 수입 중 일부를 환경기금으로 적립하여 사용할 수 있으며, 다섯째, 생태관광객에 대한 환경교육효과로 인해 환경친화적인 태도 형성에 도움이 되고, 이는 장기적으로 환경보전에 도움이 된다는 것이다(최재우 2001).

둘째, 생태관광의 경제적 효과의 기본 방향은 지역주민이 경제적 이익의 창출이 중심이 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대중관광산업의 가장 큰 취약점 중 하나는 외부자본을 사용하고 외지인을 고용함으로써 지역경제에 기여하는 바가 매우 적고 나아가 지역경제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는 경향이 있다는 점이다. 이에 비해 생태관광은 지역의 자본으로 지역주민이 개발을 주도하고 지역주민을 우선 고용하므로 관광으로 인한 경제적 혜택이 지역주민에게 돌아가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또한 생태관광이 주로 이루어지는 촌락지역에 경제적 다양성을 제공하고, 장기간 경제적 안정성을 주며, 생태관광객의 체류에 의한 지역 상품의 소비 및 서비스의 소비, 그리고 그들의 소비성향으로 인하여 지역 경제의 직접적인 이익을 기대할 수 있고, 관광산업으로 인한 사회간접자본의 발달과 외환 수익을 기대할 수 있다. 이에 더하여 경제적 이익은 지역주민들로 하여금 지역의 환경 및 문화를 지속적으로 보전하여야 할 실질적인 필요성을 느끼게 한다는 면에서 중요하다(최재우 2001). 즉, 현지주민에게 경제적으로 도움을 주는 것은 궁극적으로는 자연의 보전을 가능하게 하는 방법이며, 생태관광은 자연을 보전하고 주민에게 경제적 도움을 줄 수 있는 방법이라 할 수 있다(Brenner and Job 2006).

셋째, 교육적인 효과는 Ceballos-Lascurain이 생태관광이라는 용어를 제시한 이후 지속적으로 강조되어온 점이다. 생태관광은 관광 매력물인 자연 및 문화 자원으로부터 직접적인 학습 효과를 얻을 수 있을 뿐 아니라, 관광객,



특히 젊은이들에게 환경의 중요성과 가치를 인식시킬 수 있다는 점에서 의의를 지닌다. 즉, 생태관광은 대중에게 환경에 대한 경각심을 불러일으키며 관광객들이 자연 및 관광과정에 대하여 좀 더 세심한 태도를 갖게 할 수 있다는 점에서 교육적 효과를 갖는다(Issacs 2000, 62).

생태관광에 대한 기대는 상기한 바와 같이 매우 긍정적이다. 그러나 이러한 생태관광에 대해 부정적인 시각도 다수 존재하고 있다. 우선 생태관광이 이루어지는 곳이 대부분 환경적으로나 사회문화적으로 개발에 따른 변화를 수용하기 어려운 민감한 지역이라는 특성을 지니고 있다. 따라서 생태관광지로 명성이 높은 코스타리카, 멕시코, 에콰도르 등에서는 여러 지역에서 혼잡, 소음, 쓰레기 투기, 폐기물 방류 등으로 인한 부정적인 환경 영향이 나타나고 있다(Brandom 1993; 최정수 2003에서 재인용). 또한 생태관광이 단기적으로는 관광객이나 시설 측면에서 규모가 작아 그 영향력이 적으나 시간이 흐르면서 점차 지역에 부정적인 영향을 끼친다는 주장이 있으며(Butler 1990) 생태관광객과 지역주민의 접촉시간이 길어짐에 따라 지역에 미치는 부정적인 영향이 오히려 기존 대중 관광에 비해 훨씬 크다는 의견도 있다(김문숙 1999). 한편, 생태관광은 가장 풍광이 좋고 인기가 있는 지역에만 이익을 줄 수 있으며 관광자원이 존재하지 않는 다른 지역에는 전혀 이익이 돌아갈 수 없는 제도라는 비판이 일고 있다(Duffy 2001, 155; Uddhammar 2006, 658에서 재인용).

생태관광은 환경보전과 지역경제에 대한 기여, 사회와 환경에 대한 영향력의 최소화라는 상호충돌적인 가치를 전제조건으로 하므로 현실에 적용하여 생태관광의 목적을 달성하는 것은 실질적으로는 매우 어렵다. 따라서 생태관광이 지속되기 위해 반드시 전제되어야 하는 조건으로 생태관광을 구성하고 운영하는 주체들의 능력과 운영주체들 간의 상호협력, 즉 적절한 로컬 거버넌스(local governance)가 형성되어야 한다는 의견이 제시되고 있다(최정수 2003).

### III. 커뮤니티 기반의 발전 전략으로서 생태관광

#### 1. 커뮤니티 기반의 발전 전략의 대두

라틴아메리카를 비롯한 개발도상국에서는 신자유주의 정책으로의 선회 이후 부유층과 빈곤층 간의 경제적 격차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라틴아메리카 전역에서 빈곤에 허덕이는 노동자 계급 및 하층 계급이 증가하고 있으며 정부에 의한 공적 부조가 감소함에 따라 사회 서비스 제공의 많은 부분이 NGO나 민간 부문으로 이전되었다. 이러한 상황은 그간 경제발전과정에서 소외된 촌락 지역에서 더 두드러진다(Jackiewicz 2006, 138).

1980년대 신자유주의로 급선회한 라틴아메리카의 경우 발전과정에서 정부 역할의 후퇴가 나타났으며, 이에 따라 지역 커뮤니티는 지역의 생활환경을 개선해야 할 책임을 전가받았다. 또한 많은 커뮤니티들은 글로벌라이제이션(globalization)의 과정에서 저가의 수입농산품으로 인한 농업 분야의 손실과 외부에서 운영한 관광프로그램으로 인한 사회·경제 분야의 부정적인 영향 등으로 어려움이 가중되었다. 이에 Schumacher(1973)를 비롯한 많은 학자들은 소규모 커뮤니티들이 그들의 운명을 장악하고 선진진영에서 제시한 발전 모델을 버리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주장해 왔으며, Canclini를 비롯한 라틴아메리카의 학자들은 서구식 발전주의, 특히 서구 중심의 근대화에 대하여 반기를 들고 커뮤니티의 발전이 산업화되고 자본주의화되는 방향만으로 이루어져서는 안 된다는 주장을 펼쳤다.

한편 Jackiewicz(2006, 136-140)는 원주민 사회의 보전과 발전 방향의 논의에서 소규모 커뮤니티가 외부와의 타협, 교류 등과 변화가 없이 지속적으로 고립된 채 전통적인 생활 양식을 고수하고자 한다는 생각은 지나치게 감상적인 것이며 커뮤니티 거주자들 또한 그러한 것을 원하지 않는다고 하였다. 오히려 그들의 목표는 그들 자신의 현실과 타협하는 것이며 이러한 타협이 커뮤니티나 민중의 수준에서 시작되기를 바란다는 것이다. 그러나 이것이 커뮤니티가 독자적으로 행동하여야 함을 의미하지는 않는다.

이러한 맥락에서 Veltmeyer(2002)는 커뮤니티 발전의 새로운 모델은 다양성·자족성·환경적 지속가능성을 지향하여야 하고, 자치적인 동시에 주민 참여적이어야 하며, 자원에 대한 지역의 통제가 이루어져야 한다고 하였다(Jackiewicz 2006, 140에서 재인용). 또한 커뮤니티의 발전은 개인 수준에서부터 이루어져야 하며, 문화적인 요소를 고려하여야 하고, 인간의 활동과 자연간의 균형 및 사회적 복잡성을 충분히 고려하여야 한다고 하였다.

한편 경제 구조의 변화로 인해 각 지역 경제들은 경제구조 재편을 시도하고 있으며, 이 과정에서 관광산업은 주요한 경제 활동으로 떠올랐고 특히 개발도상국의 경제에서 관광산업이 차지하는 비중은 날로 높아지고 있다. 관광업은 부진한 라틴아메리카 경제를 활성화시키기 위한 발전 전략으로 가장 최근 제시되었으나 수요부문의 탄력도가 매우 높고 외국의 경제적·정치적 상황에 매우 민감하다는 단점이 지적되었다(Jackiewicz 2006, 139).

이러한 맥락에서 급격한 환경 및 사회적 변화를 일으키지 않는 지속가능한 방식의 관광산업 발전에 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으며 특히 커뮤니티 기반의 관광산업 발전이 지니는 잠재력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Binns and Nel 2002, 235). Timothy(2002)는 지역이 관광과 관련된 의사결정에 연관되었을 때 그 프로젝트는 성공의 가능성이 매우 높아지고 지역의 문화적 전통을 훼손할 가능성이 줄어든다고 하였다. Britton(1987)은 대규모의 대중 관광과 비교하여 분산된 소규모의 관광은 촌락의 생활에 더 골고루 영향력을 미칠 수 있다고 하였다. 예를 들어 1996년 발행된 남아프리카 공화국의 관광 백서에서는 관광산업에서 커뮤니티의 참여를 증진시켜야 함을 역설하고 있으며 공예품, 타운십 관광,<sup>3)</sup> 문화 관광 등과 같은 커뮤니티 중심의 관광산업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있다. 즉, 지역개발 정책에 커뮤니티 기반 관광을 주요한 수단으로 보고 있다(Binns and Nel 2002, 236).

개발도상국의 일부 커뮤니티는 전통적인 의미에서는 발전하고 있거나 현

3) 타운십이란 아파트헤이트 하에서 발생한 빈곤한 흑인 거주구역이다(Binns and Nel 2002, 236).

대화되고 있지 않지만 국제 조직으로부터 자원을 얻고 지역의 경제적 기반을 다양화하며 그 나뉠이로 제한된 규모의 관광객을 끌어 모으고 있다 (Jackiewicz 2006, 137-140). 예를 들어 코스타리카에서는 최근 환경 보전, 관광, 여성의 지위 향상이 결합된 커뮤니티 발전 프로그램을 시작하여 적극적이고 자주적으로 글로벌라이제이션에 대처하고 있다. 특히 국가의 발전 정책 중의 하나인 에코투어리즘을 택함으로써 정부의 재정 및 기술적 지원을 얻을 수 있었으며 NGO 단체와의 관계를 통해 지속적인 후원은 물론이고 관광객들이 이 지역을 찾도록 하는 기술 및 지식을 얻을 수 있었다(Jackiewicz 2006, 141-144).

## 2. 커뮤니티 기반의 생태관광

정부가 주도하는 야생동물 관리가 만족스런 결과를 내지 못하자 새롭고도 혁신적인 보전 정책, 즉 커뮤니티 기반의 자연 자원 관리 혹은 커뮤니티 보호 구역이 제시되었다. 이러한 정책들은 통합적인 특성을 지니는데, 기존의 경우처럼 야생동물 관리와 관련하여 촌락 공동체를 내치는 것이 아니라 촌락 공동체와 협조하여야 한다. 새로운 야생동물 보호제도의 주요 전제조건은 '생산 공동체'에게 이윤을 제공하는 것이 결과적으로 보전으로 이어진다는 것이다. 실제로, 이러한 형태의 관리 정책에 대한 일부 지지자들은 커뮤니티의 참여와 포섭만이 보전이 이루어지기 위한 유일한 방법임을 강조하고 있다(Dzingirai 2003, 445-446). 본 장에서는 야생동물의 사냥으로 인한 수입을 원주민들에게 분배함으로써 지역의 경제적 이익과 자연보호를 이룬 짐바브웨의 CAMPFIRE와 생태관광에의 참여를 통하여 원주민 마을의 사회적, 경제적 위상을 높이고자 하는 에콰도르의 원주민 커뮤니티 기반 생태관광 제도를 통하여 생산 공동체에 이윤을 주는 것을 기본으로 구성된 생태관광의 운영방식을 살펴보고자 한다.

CAMPFIRE(Communal Areas Management Programme for Indigenous Resources)는 짐바브웨 정부가 미국국제개발(USAID), 세계자연보호기금(Worldwide Fund For Nature)과 같은 NGO단체와 짐바브웨 트러스트의 재

정적 지원 하에 민간기업과 함께 야생동물을 기반으로 1989년에 시작되었다. CAMPFIRE는 관광자들에게 사파리 사냥 허가권의 판매로 인해 창출된 이윤을 생산자 공동체에게 자연을 보호하는 데 협조한 대가로 지불한다. 소위 트로피 사냥이라 불리는 야생동물 사냥관광의 참여자는 단지 사냥만을 경험하고 사냥된 동물은 지역커뮤니티를 위해 기부하게 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사냥 프로그램은 생산자 공동체가 그들의 지역에서 사냥 허가와 관련된 협상을 진행하여 구성되는 것이 아니라 지역 정부의 기구인 농촌 의회가 사파리 서비스 회사와 협상을 진행하여 프로그램을 구성하고 진행한다 (Boniface and Cooper 2009b, 201-207).

CAMPFIRE 프로그램은 짐바브웨의 여러 지역에서 실시되고 있으며, 이 가운데 식민지시대부터 야생동물 보호를 명분으로 추방되었던 통가(Tonga) 족을 예로 살펴보면, 이들은 야생동물 사냥으로 얻은 수익을 배분받고 트로피 사냥의 진행요원으로 참여할 수 있는 권리를 부여받는다. 사냥으로 인한 수익의 일부는 지방의회가 위원회를 구성하기 위해 사용하게 되며 마을주민들에게 돌아가는 몫은 프로그램마다 차이가 나지만 전체 수익의 10% 미만인 경우도 많으며 50%를 넘지 않는다(Uddhammar 2006, 659). CAMPFIRE 프로그램으로 인해 커뮤니티가 배분 받은 이익은 결혼한 성인 1인을 기준으로 개인에게 돌아가게 되어 일부다처제 가정이 상대적으로 유리하였다. 이에 독신자들이나 일부일처제를 따르는 사람들로 부터 거센 반발이 일자 위원회는 이윤의 직접적인 배분 대신 마을에 필요한 사회기반시설 건설비의 비중을 계속 늘리고 있다(Dzingirai 2003, 450).

한편 CAMPFIRE의 사파리 프로그램에는 통가 족과 같이 프로그램의 수혜를 입는 부족만이 참여하여 일자리를 얻을 수 있다. 따라서 프로그램에 해당되지 않는 커뮤니티의 성원들은 프로그램에 반감을 가지는 경우가 많으며 CAMPFIRE 프로그램보다는 직접적인 이익을 얻을 수 있는 상업 작물의 재배가 확대되기를 원하고 농작물에 피해를 입히는 야생동물의 밀렵을 자행하기도 한다. 이들이 상업농에 유리한 짐바브웨의 토지 제도를 염두에 두고 토지

에 대한 소유권을 주장하기 위하여 농지로 전환하는 경우가 많으며 농민들의 주거지가 증가하고 있어 CAMPFIRE 프로그램을 위한 사냥터는 지속적으로 줄어들고 있다(Dzingirai 2003, 446-447; 453-456).

나아가 CAMPFIRE 프로그램은 결국 원주민 공동체 토지에 대한 정부 및 민간 기업의 전례 없고 규제가 되지 않는 침입으로 귀결될 것이라는 우려가 제시되기도 하였다. 또한 짐바브웨 정부가 국가의 토지 분배 정책에서 상업 농을 우대하는 정책을 펴고 있는 데 대하여 CAMPFIRE 프로그램이 일종의 면죄부를 제공하는 것이라는 우려도 일었다. 그러나 CAMPFIRE 프로그램은 야생생태계와 함께 생활하면서 고통을 겪는 원주민들을 무시하던 정부 주도의 야생동물 정책으로 인한 피해에 대한 하나의 해결책으로 제시되고 있다(Dzingirai 2003, 449-450). 또한 CAMPFIRE 프로그램은 빈곤한 촌락 커뮤니티의 소득 수준을 향상시킴으로써 커뮤니티 기반 자연 자원 관리가 성공할 수 있다는 사례로 평가되고 있다(Campbell *et al.* 2000, 42).

한편 인구의 대부분이 원주민인 아프리카와 달리 유럽계 백인과 메스티소에 비해 사회적 타자, 혹은 사회적 약자인 라틴아메리카 원주민 문제는 그들의 주된 거주지인 촌락지역의 문제와 결부되어 라틴아메리카의 일부 국가에서는 주요한 사회문제가 되고 있다. 이에 생태관광은 자연 자원을 보존하면서도 자연보호 구역이나 원주민 구역의 토지를 둘러싼 분쟁, 내전, 정치적 불안정, 광업 및 석유 시추업, 삼림 파괴 등으로 인하여 자연 및 문화적 위협에 처해 있는 일부 원주민 사회에 경제적 도움을 줄 수 있는 수단으로 인식되고 있다(Zepel 2006, 68).

에콰도르의 예를 살펴보면, 에콰도르는 전 국토의 17%가 국립공원이나 자연 보존구역으로 이루어져 있다. 안데스 산맥의 일부와 아마존 분지의 일부에 위치하여 생물학적 다양성이 높고 아름다운 경관을 지닌다. 에콰도르는 안데스 고원과 아마존 우림 지역에 다양한 원주민 문화가 존재하고 있기에 다양한 커뮤니티 기반 생태관광 회사들이 운영되고 있다. 특히 아마존의 열대 우림 지역의 프로그램들은 대부분 원주민 그룹들이 운영하고 있다. 이들

은 원주민 구역에서 외지인이 관광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것에 대항하고 석유 및 목재를 채굴하는 것을 막기 위하여 생태관광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있다. 즉, 이 지역에서의 생태관광 프로그램은 농업에 대한 보완 및 보조 활동이 되고 있으며 이는 원주민들이 생계를 위하여 생태계를 과이용하거나 주요한 생태자원을 남획, 훼손하는 것을 막는 실질적인 수단이 되고 있다. 원주민 마을들은 종종 몇 개의 마을이 연합하여 생태관광 단위를 구성하며 생태관광의 운영을 위한 가이드라인이 에콰도르의 아마존 원주민 운동단체인 CONAIE<sup>4)</sup>에 의해 발행되기도 하였다(Blangy 1999; Zeppel 2006, 68에서 재인용).<sup>5)</sup>

에콰도르 정부는 생태관광 프로그램을 지원하고 진흥하기 위하여 Plurinational Federation of Community Tourism of Ecuador(FEPTC)를 조성하였으며 FEPTC는 아마존 지역, 안데스 지역 그리고 해안 지역에서 원주민들의 의해 개발되는 생태관광 프로그램을 지원하고 진흥하기 위해 활동하고 있다. 그러나 마을의 생태관광에 대한 에콰도르 정부의 지원은 한정적인 것이다(de Bont and Janssen 2002; Zeppel 2006, 68에서 재인용). 1997년 키토에서 열린 A National Forum on Community Participation in Ecotourism에서는 관광객에 대한 가이드라인, 지역 원주민 가이드의 육성, 용도구역제도의 도입 등을 추천하였으며 이들 커뮤니티들은 재정적인 면이나 운영 면에서 도움을 줄 외부 주체들(NGO, operators) 등과의 협약을 맺었다(Zeppel 2006, 69). 특히 2001년의 Otavalo 선언과 2003년의 San José 선언에서는 원주민들이 그들의 영역 내에서 이루어지는 촌락 커뮤니티 기반 관광(rural community-based

4) 원주민 운동에 관해서는 김은중(2008), 김윤경(2008; 2010), 김달관(2010) 참조.

5) 에콰도르의 원주민들의 권리 주장은 매우 두드러진 것으로, 브라질과 비교하면 잘 나타난다. 에콰도르의 경우 약 10만 4천 명의 원주민들이 13만 8천 km<sup>2</sup>의 아마존 우림의 75%에 대한 권리를 주장하고 있는 반면 브라질 아마존에서는 약 13만 9천 명의 원주민이 620만 km<sup>2</sup>의 아마존 우림에 대한 21% 정도의 지역에 대한 권리를 주장하고 있을 뿐이다. 에콰도르는 원주민의 정치적 조직인 강하기 때문에 아마존의 많은 부분에 대한 법적 권리를 행사하고 있으며, 지자체 수준에서 관광 행위에 대한 정치적 자치권을 갖고 있다(Drumm 1998; Zografos and Oglethorpe 2004; Boniface and Cooper 2005; Zeppel 2006, 68에서 재인용).



tourism) 프로젝트로 인해 이익을 누릴 권리가 있음을 재확인하였다. 이렇듯 정부와 마을 공동체 등의 적극적인 노력으로 라틴아메리카에서의 생태관광은 1990년대 이후 지속적으로 성장하였으나 생태관광 프로젝트에의 촌락 주민이나 원주민들의 참여에는 제한이 많은 것이 현실이다(Mader 2003; Ecotribal 2005; Zeppel 2006, 68에서 재인용).

#### IV. 커뮤니티 기반 생태 관광의 사례 연구

전기한 바와 같이 현재까지 생태관광에 관한 연구는 자연보호의 새로운 형태와 커뮤니티의 발전 전략으로서 생태관광의 의의 및 제도적인 측면의 연구가 주를 이루었으며 생태관광에 대한 참여관찰을 통한 현장 연구는 많지 않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생태관광 프로그램에의 참여 관찰을 통해 생태관광의 전제 조건으로 제시된 사항들이 현실에 적용될 때 어떠한 형태로 실현되는지, 그 과정에서 관광 요소들이 지니는 의의 및 운영과정에서의 문제점을 살펴보고자 한다. 한 경우의 사례 연구를 통하여 생태관광 전반에 관한 논의의 일반화는 이루어질 수는 없으며 이 사례에 한정된 것임을 밝혀 둔다.

생태관광 프로그램 참여는 2010년 10월 29일 멕시코 키타나 로오 주(Quintana Roo) 북부의 팍첸 마을과 코바(Coba) 유적지에서 실시하였다. 멕시코 유카탄 반도의 북부인 이 지역은 '생태관광'이라는 용어가 처음으로 제시된 곳이기도 하다. 유카탄 반도에 위치한 국제관광지구인 칸쿤(Cancún)에서는 다국적 여행사인 Expedia.com 등의 에이전시들이 소규모 관광회사의 프로그램을 판매대행하고 있었으며 대부분 유카탄 반도 북부의 마야문명 유적지와 카리브해의 자연경관 및 그 체험을 결합한 상품들이었다. 본 프로그램은 칸쿤 일대에서 판매되는 유일한 생태관광 프로그램이었다. 라틴아메리카에서는 관광객들이 주로 드나드는 지역을 중심으로 생태관광이 발달하는 것이 특징이다. 에콰도르에서는 키토, 브라질에서는 마나우스, 볼리비아의 라파스, 페루의 이키토스, 콜롬비아의 레티시아, 멕시코의 칸쿤과 카리브 해 지역 등 북미 및 유럽과

의 연결성이 높은 기존 관광지와 연계하여 생태관광이 발달하는 경우가 많다.

참여한 프로그램은 ‘Coba Maya Encounter Expedition’으로 ‘alltounative’라는 회사에서 운영하는 것이었다. Pac-chen이라는 마야 전통의 마을의 문화 체험과 코바 유적지 관광, 그리고 석회암지대의 싱크홀(sinkhole) 지형의 일종인 쎄노페를 비롯한 자연에서의 모험을 결합한 상품이었다. 비용은 성인이 119달러, 어린이가 79달러로 유카탄 지역에서 판매되고 있는 여타 관광상품에 비해 20-30% 정도 가격이 높았다. 각 팀은 12명 이내로 구성되었다. 프로그램 참여 중에 원주민 사진사가 관광객들을 따라다니며 사진을 찍어 이를 개별적으로 판매하였는데, 종류별로 사진 1장에 19달러, CD 1장 제작에 39달러, 사진과 CD 제작은 79달러였다.

프로그램의 구성은 표 IV-1과 같으며, 체험한 내용을 관광객, 가이드, 주민 참여, 기업의 역할 등을 중심으로 살펴보고자 한다.

우선, 관광객들에 대해 살펴보면, 생태관광에서는 하나의 팀이 12인 이하 혹은 20인 이하여야 한다는 규정들이 제시되는데, 관찰자가 참여한 팀은 가이드를 제외하고 총 7명이 참여하였다(그림 IV-1). 영어로 진행되는 팀으로 참여자와 일행 1명을 제외하고는 모두 미국 출신으로 백인 4인 흑인 1인이었다. 총 5개 팀의 70여 명이 동시간대에 동일한 관광상품에 참여하였는데 이 중 세 팀은 영어로 진행되었고 한 팀은 스페인어와 영어를 혼용하였으며 나머지 한 팀



〈그림 IV-1〉 마야식 의식을 체험하는 관광객들(2010. 10. 28. 필자 촬영)

〈표 IV-1〉 ‘Coba Maya Encounter Expedition’ 프로그램의 일정 및 가이드의 역할

시간	활동	상세 내용	가이드의 역할
07:30	숙소 출발	7인의 관광객 탑승	운전. 관광에 대한 개괄적인 설명
08:00	Tierr Negra 진입	통행료 25페소 지불	운전. 마야 문명에 설명. 간단한 마야 언어 소개. 마야 문명 및 원주민에 대한 존중과 경의를 강조.
10:00	팍첸 마을 도착	식당, 락커룸, 기념품 판매점 등이 있음. 이 지점부터 사진사 동행	마을과 자연에 대한 영향력을 최소화하기 위한 구체적인 행동지침 강조
	열대우림 산책	열대우림의 식생을 관찰하며 산책.	숲에 있는 식생에 대해 상세한 설명.
	Zipline crossing	줄을 타고 강을 건너는 모험 활동. 관광객의 장비를 갖추는 지점에 10명 이내의 원주민들이 대기하며 도움을 줌.	모험적인 활동을 두려워 직접 참여.
	마야식의 식 참석	주술사가 관광객들의 무사귀환을 비는 의식 행함.	의식과 관련하여 경건함을 잃지 않도록 주의.
	쎄노페 입수	라펠을 타고 쎄노페에 입수. 10명 이상의 원주민들이 관광객들의 라펠을 직접 끌어줌.	관광객들에게 쎄노페는 마을주민들이 식수로 이용하는 것이며 성스러운 장소임을 강조. 관광객들이 입수 전에 샤워를 하도록 감독. 입수에 직접 참여.
	호수에서 배타기	10명 이내의 원주민들이 관광객들이 배를 타고 내리는 것을 도와줌.	관광객들의 안전 강조. 배타기에 직접 참여.
12:00-	마야식 점심 식사	마을 입구에 위치한 식당에서 마야식 점심 식사를 함. 음료는 나무수액.	원주민의 일상적인 식단을 설명. 같이 점심 식사.
12:20-	사진 찾기	기념품 가게에서 원주민 사진사가 찍은 사진 중 맘에 드는 것을 골라 구입. 대부분의 관광객이 적극적으로 구입.	사진 선정과정을 도와줌.
12:40	마을 출발		운전. 코바 유적지에 대한 설명.
13:20-	코바 유적지 도착	자전거, 인력거, 도보 등을 이용해 코바 유적지 관람	코바 유적지에 대한 자세한 설명.
15:20	코바 유적지 출발		인원 확인. 생수 1병씩 선물.
	설문조사.	관광객들에게 관광의 질과 개선할 점을 조사.	운전. 설문조사.
17:00	숙소 도착	하차 및 해산	승객 하차. 팁은 받지 않음.

은 독일어를 주로 하고 영어를 혼용하였다. 관광객은 유럽 및 미국인들로 백인이 주를 이루었으며 동양인은 5명 이내였고 흑인의 경우도 마찬가지였다.

생태관광 상품은 여타 관광상품에 비해 고가이고, 프로그램은 교육적 성향이 강하여 생태관광자들은 교육 연한이 길고 비교적 사회적 지위가 높으며 수입이 높은 경향이 있다. 용도지구제와 고가의 가격 유지는 생태관광이 갖는 기본적인 정책이다. 생태관광 상품이 고가의 가격을 유지하는 것은 가격을 지불한 능력이 없는 소비자를 배제함으로써 관광자의 규모를 제한하고 이를 통하여 관광지의 오염과 훼손을 최소화하며 지역사회에는 비교적 높은 이윤을 보장하기 위함이다(Chase *et al.* 1998, 466). 미국 여행산업협회의 조사에 따르면 미국 관광객의 80% 이상이 환경적으로 책임감이 있는 여행상품을 구입할 의사가 있다고 밝히고 있으며 선진국 관광객을 대상으로 하는 생태관광시장은 매우 넓고 성장 가능성이 높다(문창현 2006). 따라서 생태관광은 관광자들의 출신국가가 일부 국가에 한정되는 경향이 강하며 관광 배출국의 경제적 상황과 밀접한 연관을 갖는 경향이 대중관광에 비해 훨씬 높아진다.<sup>6)</sup>

둘째, 가이드에 대해 살펴보면, 가이드는 생태관광의 질을 결정짓는 매우 중요한 요인이며 생태관광으로 인한 직접적인 이윤이 가장 많이 배당되는 역할이다. 생태관광에서 가이드는 관광객으로 인한 자연적·사회적 영향력이 최소가 될 수 있도록 관광자를 효율적으로 통제하고 관광자들로 하여금 방문지에 대한 전문적인 수준의 설명으로부터 해당 사회 및 자연에 대한 존중하는 태도까지 전달하여야 한다(그림 IV-2). 따라서 전문적인 가이드의 육성과 섬세한 관광 프로그램의 구성이 필수적이다. 또한 라틴아메리카의 에코투어리즘을 이용하는 관광객들은 북미와 유럽 출신이 다수를 차지하므로 영어를 구사하는 것이 필수 요건이다. 그러나 대부분의 자연보호구역을 비롯한 에코투어리즘 실시 지역에서는 적절한 프로그램과 가이드를 준비하는

6) 그러나 여행상품업자들이 생태적으로 책임감이 있는 소비자들을 끌어모으기 위하여 생태 인증 라벨을 남용하고 있다는 지적이 대두되고 있기도 하다. 이에 생태관광에 대한 국제적 기준의 적용과 체계적인 관리가 주요한 사안이라 할 수 있다.



〈그림 IV-2〉 관광객들에게 설명을 하는 가이드(2010. 10. 28. 필자 촬영)

것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Paby *et al.* 1991). 따라서 커뮤니티 기반 생태관광은 커뮤니티의 참여와 포섭이 매우 주요한 전제조건이나 정밀한 프로그램의 계획 및 운용, 가이드의 육성, 지역 및 관광자에 대한 교육 등의 부문에서는 NGO가 주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

참여 프로그램의 가이드는 지역 주민이 아니라 멕시코시티에서 교육을 받고 영어가 능숙한 멕시코인이었는데, 그는 프로그램 실행 도중 많은 양의 원주민 문화, 자연, 모험, 멕시코 및 유카탄 지역의 현지 상황에 대한 내용을 영어로 전달하며 관광객들을 통제하고, 여러 활동을 독려하고 참여하였다. ‘alltournative’의 가이드 모집 요강에 의하면, 가이드가 갖춰야 할 기술로는 모험 및 자연관광에 대한 열정, 그리고 도움이 필요한 커뮤니티를 돕고자 하는 마음이라고 하였다. 구체적인 자격사항으로는 내국인의 경우 모국어 이외에 한두 가지의 언어를 더 할 줄 알아야 하며 중등교육 이상의 학력을 지녀야 하고 수영을 할 줄 알아야 하며 운전면허가 있어야 한다. 외국인의 경우 모국어 이외에 3가지 언어를 더 구사할 줄 알아야 한다고 하여 생태관광의 가이드의 기본적인 요건은 외국어 구사 능력임을 알 수 있었다.

셋째, 운영회사인 ‘alltournative’에 대하여 홈페이지를 통하여 살펴보면, 이 회사는 2001년 2월 설립되었으며, 청정한 대체 에너지를 사용하며 커뮤니티의 구성원들에게 교육 및 고용 기회를 제공하며 경제적 발전을 지향

하는 친환경적이고 창의적이며 지속가능한 프로젝트라고 자신들을 소개하고 있다(그림 IV-3). 이 프로그램으로 인하여 팍첸 마을은 멕시코 원주민 협회(el Instituto Nacional Indígena: INI)와 멕시코 환경자원부(la Secretaría del Medio Ambiente Recursos Naturales: SEMARNAT)가 선정한 최고의 생태관광상 이외에 다수의 상을 수상하였다. 이 회사는 열대우림, 호수, 쉼노페 등의 자연자원과 리비에라 마야 지역의 문화자원을 관광자원으로 활용하고 있으며 이 프로그램 이외에도 자연기반의 모험관광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었다(<http://www.alltournative.com/>).

커뮤니티 기반의 생태관광들은 대부분 실질적인 운영은 관광회사들이 맡고 있다. 2002년 ‘퀘벡 선언’에서는 생태관광에서는 사회적, 환경적 목적의 소규모 내지는 영세규모의 기업들이 핵심 파트너가 되어야 함을 역설하였다. 이는 관광산업의 가장 큰 단점이라 할 수 있는 주요 이윤의 외지로의 유출을 차단하기 위한 것이다. 생태관광에서 요구되는 시설은 일반적인 관광산업과는 차이를 나타낸다. 여행의 매력물은 자연기반의 매력물이며, 숙박, 식사, 가이드 등 여행관련 서비스가 자본 집중적일 필요가 없어 소규모 기업의 진출이 용이하다. 또한 일반적인 관광산업과 달리 쇼핑, 야간 여흥, 레크리에이션 등에 대한 수요는 적다. 단 이동수단 및 여행관련 서비스가 환경 친화적이어야 하고 잘 관리되어야 한다.



〈그림 IV-3〉 운영회사의 로고가 새겨진 친환경적인 화장실(2010. 10. 28. 필자 촬영)



일반적인 관광산업이 점차 자본 집약적으로 발전하고 있으며 대규모 조직력과 자본력을 동원할 수 있는 다국적 기업들의 경쟁력이 높아지는 반면, 생태관광은 자본의 집중보다는 조직적이고 체계적인 관리가 중요하다. 본 프로그램도 체험이 종료되는 시점에서 가이드는 참여자들에게 관광에 대한 만족도와 프로그램에 대한 제안을 조사하는 설문조사를 실시하였으며 관광객들의 의견을 다음 프로그램에 반영하겠다고 하였다.

생태관광의 운영을 위해서는 프로그램의 직접적인 관리 이외에도 지역 정부 및 환경단체의 역할, 원주민의 참여 및 이들 간의 거버넌스가 중요하게 대두되고 있다(최정수, 2003). 그러나 역할 주체들의 참여도는 각 지역의 여건과 생태관광의 현황에 따라 달라지는데, 국제 생태관광산업에서 주도적인 역할을 하고 있는 호주의 경우 퀸스랜드 지방정부가 주도하는 생태관광 관련 프로젝트 및 프로그램이 생태관광의 발전에서 매우 주요한 역할을 차지하고 있다. 퀸스랜드는 방문객에 대한 지속적인 연구를 실시하고 있으며 생태관광의 계획·개발·운영에서 정부와 관광업체의 긴밀한 연계를 통하여 수준 높은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으며 공항, 숙박시설, 도로망 등 생태관광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한 기반시설을 잘 갖추고 있다(Boniface and Cooper 2009b, 247-254; 오수경 2004, 68-70).

넷째, 원주민에 대한 실질적이고도 지속적인 이윤의 분배는 생태관광이 지속되기 위한 필수 조건이다. 본 프로그램에서도 관광객들이 방문하는 장소마다 다수의 원주민들이 보조적인 역할을 수행하고 있었으며 모두 유니폼을 착용하고 있었다(그림 IV-4). 한편 원주민들이 찍은 사진은 비교적 고가에 판매되었지만 다수의 관광객들이 원주민 마을을 위하여 기꺼이 구입하는 모습을 보였다.

운영회사인 ‘alltournative’는 Pac-Chen 마을과 함께 마을의 문화와 관습을 보전하면서 지속가능한 개발을 하기 위하여 협력하고 있으며 이 프로젝트를 통하여 사냥과 벌목을 행하지 않음으로써 자연보호구역을 보전하고 있다고 주장하였다. ‘alltournative’는 프로젝트의 시작 이후 지역 사회에 상당한 양





〈그림 IV-4〉 관광객들을 돕는 원주민들(2010. 10. 28. 필자 촬영)

의 경제적 이윤이 돌아갔으며 이로 인해 지역 주민의 삶의 질이 높아졌고 커뮤니티 구성원들이 모두 고용되었다고 하였다. 실제로 팍첸마을 체험장으로부터 코바까지 이르는 도로변의 원주민들의 주택은 다른 지역에 비해 주택의 질이 높아보였고 대부분의 가정이 자동차를 마당에 세워놓고 있었다.

기존의 관광개발에서는 개발이 진행되는 과정에서 외부 자본이 유입되고 토지의 사용권이나 소유권까지 외부자본에게 양도되는 경향이 있었으며 고용부문에서도 고도의 직업훈련을 받지 못한 지역주민들은 단순노동에 한정되는 것이 일반적이었다. 따라서 이윤의 대부분이 외부로 유출되는 현상이 나타났으며 개발도상국의 경우 이윤의 해외 유출비율이 70% 이상에 달하였다(오수경 2004, 58). 이와는 대조적으로 커뮤니티에 기반한 생태관광은 목재 벌목과 농업에 대한 대안적인 경제 활동으로 제시되었으며 원주민들의 토지소유권 주장에 도움이 되었고 원주민 문화를 보존하고 강화시키는 데 일조하였다고 평가받는다(Wesche and Drumm, 1999; de Bont and Janssen 2003; Mader 2004; Zeppel 2006, 68에서 재인용). 그러나 본 프로그램에는 원주민 마을을 중심으로 구성되었다고 하였으나 주민들의 생활을 관찰할 수 있는 기회는 거의 없었고 쎄노페에 입수하기 전 마야 전통의 의식에 참여하는 것과 마야식 점심식사를 하는 것에 그쳤다. 또한 쎄노페가 주민들에게 성스러운 장소이며 식수원으로 이용되고 있다는 설명을 한 후 쎄노페에 입수

하여 물놀이는 즐기는 코스는 관광을 통한 원주민 사회에 대한 영향력이 적을 수는 있어도 아예 존재하지 않을 수는 없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나아가 짐바브웨의 CAMPFIRE의 경우에서처럼 공동체가 그들의 지역에서 사냥 허가와 관련된 협상을 진행하는 것이 아니라 지역 정부 기구인 농촌 회의가 사파리 서비스 회사와 협상을 진행하는 방식은 주민들의 이익이 아니라 의회의 이익이 되고 있다는 비판도 제기되고 있으며 공동체 내에서의 이윤 배분의 원칙으로 인하여 이익이 골고루 배분되지 않는 점도 지적되고 있다. 또한 생태관광 프로그램에 해당되지 않는 공동체의 경우 생태관광이 제공하는 이윤뿐 아니라 고용기회에서도 배제되고 있으며 이들이 프로그램에 대한 반감으로 지남으로써 자연 생태계의 파괴가 자행되고 있다는 비판이 일고 있다(Dzingirai 2003, 446-456). 또한 에코투어리즘으로 인해 파생되는 경제적 효과가 한 보호구역 내에서도 차이가 나타난다. 특히 많은 비용이 지급되는 관광가이드의 경우 특정 지역의 주민들에게만 할당되기도 하여 지역 간 경제적 불균형뿐 아니라 사회적 갈등의 원인이 되기도 한다.

## V. 요약 및 결론

본고에서는 우선 생태관광의 정의와 의미를 살펴보고, 커뮤니티 기반 발전전략이 대두된 배경과 커뮤니티 기반의 생태관광의 의의에 대해 살펴보았다. 나아가 지난 2010년 10월 멕시코 유카탄 반도 북부에서 체험한 생태관광의 경험을 바탕으로 커뮤니티 기반 생태관광의 실행 과정에서 나타난 관광의 역할 주체들의 역할과 의의, 문제점 등에 대해 살펴보았다.

생태관광은 최근 선진국 관광시장에서 나타나고 있는 틈새관광의 한 조류이며 생태관광이라는 개념은 1980년대 멕시코 유카탄 반도의 해양관광지 개발과정에서 제시되었다. 생태관광은 지역사회의 사회적, 경제적 편익의 창출과 자연환경의 보전이라는 두 가지 목표를 모두 만족시키기 위한 대안으로 제시되었다. 생태관광의 개념이 싹트기 위한 배경으로는 1970년대 이후 대

두된 윤리적 소비 및 기업들의 친환경규제의 영향까지 거슬러 올라갈 수 있으며 1980년대 이후 대두된 지속가능한 개발의 개념 또한 생태관광의 개념 형성에 주요한 영향을 미쳤다.

지속가능하고 책임 있는 관광에 대한 수요의 증가로 1990년대 이후 생태관광은 전세계적으로 급속한 성장을 나타내었다. 이에 여러 학자들은 생태관광에 관한 개념을 정의하는 작업을 실시하였는데, 생태관광이란 첫째, 비교적 훼손되지 않은 자연지역을 기반으로 하는 야생생태계와 지역문화자원을 관광대상으로 하는 여행이며, 둘째, 환경보전과 지역주민의 사회적, 경제적 복리 증진을 추구하는 관광이고, 셋째, 환경적, 생태적으로 세심하게 통제되고 책임이 수반되는 관광이다. 따라서 생태관광은 자연지역에 초점을 두고 고객 만족에 중점을 두면서도 교육적이며, 환경보전에 공헌하고 문화적 경외감을 가지며 지역주민과 함께 하는 관광으로 경제적 이익뿐 아니라 환경적, 사회적 측면까지도 고려하는 책임 있는 관광이라는 점에서 의의를 지닌다.

신자유주의 정책의 영향으로 대다수 개발도상국의 발전과정에서 정부 역할의 후퇴가 나타났으며, 이에 따라 지역 커뮤니티는 지역의 생활환경을 개선해야 할 책임을 전가받았다. 일부에서는 소규모 커뮤니티들이 그들의 운명을 장악하고 선진진영에서 제시한 발전 모델을 버리는 것이 바람직하며 커뮤니티의 발전이 서구식 발전주의 방향만으로 이루어져서는 안 된다는 주장이 제기되었다. 이에 커뮤니티 기반의 생태관광이 기존의 발전모델에 대한 대안으로 제시되었다. 한편 정부가 주도하는 야생생물 관리가 만족스런 결과를 내지 못하자 새롭고도 혁신적인 보전 정책이 제시되었는데, 소위 '커뮤니티 기반의 자연 자원 관리' 혹은 '커뮤니티 보호구역'이라 불린다. 이러한 정책들은 주요 전제조건은 '생산 공동체'에게 이윤을 제공하는 것이 결과적으로 보전으로 이어진다는 것이다.

커뮤니티 기반의 생태관광은 선진국 출신의 관광자가 개발도상국의 덜 훼손된 자연자원 및 원주민 마을의 문화를 매력물로 하는 관광상품을 고가에 구입하는 형태가 일반적이다. 고가의 가격을 정책을 통하여 관광자의 규모

를 제한함으로써 관광지의 오염과 훼손을 최소화하고 지역사회에는 비교적 높은 이윤을 보장할 수 있다.

본 연구에서는 생태관광 개념의 발상지인 멕시코 유카탄 북부에서 실시되고 있는 생태관광프로그램의 체험을 통하여 생태관광의 실시 과정에서의 주요 주체들의 역할을 살펴보았다. 연구 대상이 된 생태관광프로그램은 팍첸 마을 원주민의 생활상과 마야 문명의 유적지, 열대우림의 경관과 그곳에서의 모험을 주요 매력물로 하는 것이었다. 관찰 당시 프로그램에 참여한 관광객자는 대부분 선진국 출신의 외국인들이었으며 고가의 관광 프로그램 가격과 기념품 가격을 지불하고 환경에 대한 영향력을 줄이기 위해 가이드의 지시에 따르는 등 책임 있는 관광객자로서의 태도를 보이는 경우가 대부분이었다. 가이드는 영어를 유창하게 구사하는 외국인으로서 프로그램 실행 과정을 세심하게 관리하였으며 원주민 문화 및 마야 문화에 대한 소상한 지식을 관광객들에게 전달할 뿐 아니라 지역문화에 대한 존중을 강조하였다.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주민의 대부분의 역할은 프로그램의 진행을 보조하거나 관광객자를 돕는 것에 그쳤다. 프로그램의 판매는 대규모 관광회사가 맡고 있었으나 프로그램의 실질적인 실행주체는 소규모 관광회사였고, 이들은 프로그램의 종료 시 관광객자를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여 지속적인 모니터링을 실시하고 있었다. 본 프로그램은 다수의 수상 경력에서도 짐작할 수 있듯이 세련된 구성과 비교적 무난한 진행방식이 돋보였다. 그러나 원주민 문화의 체험 기회 또한 매우 제한적인 것이었으며, 참여과정에서 원주민의 역할은 매우 제한적인 것이었으며 그들에게 돌아가는 이익 또한 제한적인 것임을 유추할 수 있었다.

최근 여러 단점이 제시되고 있지만, 생태관광은 개발과 보전이라는 대립된 개념에 대한 절충안으로서 제시될 수 있으며 보전의 과정에서 일방적으로 희생이 강요된 지역주민의 이익을 우선시한다는 점에서 의의를 지닌다. 또한 커뮤니티 기반 생태관광은 정부 주도의 전통적인 개발방식이 아닌 커뮤니티 주도의 개발방식이라는 점에서 가치를 지닌다. 그러나 정부의 역할이 축소된 채 커뮤니티, NGO, 지역 주민, 소규모 회사 등이 주체가 되어 실시

되는 커뮤니티 기반 생태관광은 각각의 실행 주체가 골고루 그 역할을 다하여야 본래의 목적을 수행할 수 있으며 그 과정은 기존의 대중관광에 비해 정교한 프로그램의 계획과 섬세한 운영을 필요로 한다. 본 연구에서 관찰한 프로그램의 경우 세심하고 능숙한 가이드와 그를 고용한 전문 회사의 관리로 인해 전반적인 과정은 매끄럽게 진행되었으나 주민의 참여도는 낮게 나타났다.

1990년대 이후 생태관광 산업이 급속하게 발전함으로 인해 초기에는 이에 대한 개념의 정립이 생태관광 연구의 주요한 축을 이루었으며 최근에는 각 주체들의 역할 및 그들 간의 거버넌스에 관한 연구가 다수 이루어지고 있다. 이에 본 연구는 커뮤니티 기반 생태관광에의 실질적인 참여라는 방법을 통하여 각 실행주체들의 역할에 관하여 연구하였으나 이는 한 사례에 한정된 것으로 일반화할 수 없다. 향후 다른 배경의 생태관광에의 참여를 통한 사례 연구가 더하여진다면 생태관광에서 가장 주요한 문제 중의 하나라 할 수 있는 실행 주체들의 역할에 관한 구체적인 이론을 정립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으리라 생각한다.

## 참고문헌

- 김달관(2010), 「에콰도르 원주민 운동의 등장배경과 변천과정 : 국민국가형성부터 현재까지」, 이베로아메리카연구, Vol. 21, No. 2, pp. 25-55.
- 김문숙(1999), 「생태관광을 통한 장소관측에 관한 연구: 강화도 장화리를 사례로」, 석사학위논문, 서울대학교.
- 김선희(1995), 「코스타리카의 생태관광」, 도시문제, Vol. 30, No. 320, pp. 102-106.
- 김양자(2001), 「수도권 민박마을의 형성과 지역변화: 화성시 서신면과 가평군 북면을 중심으로」, 박사학위논문, 고려대학교.
- 김윤경(2008), 「이베로아메리카의 국가, 인종, 그리고 성 ; 멕시코의 사파티스타(Zapatista)운동 -새로운 세계를 향한 원주민 운동」, 서양사론, Vol. 97, pp. 85-115.
- 김윤경(2010), 「1980~1990년대 에콰도르의 원주민 운동 -CONAIE의 “상호문화

- 성”과 “복수국민”], 서양사론, Vol. 107, pp. 201-233.
- 김은중(2008), 「권력의 식민성과 볼리비아 원주민 사회운동」, 이베로아메리카 연구, Vol. 19, No. 1, pp. 29-57.
- 류주현(2008), 「부정적 장소자산을 활용한 관광 개발의 필요성」, 한국도시지리 학회지, Vol. 11, No. 3, pp. 67-79.
- 문창현(2006), 「순천만 지역의 생태관광에 관한 연구」, 박사학위논문, 서울대학교.
- 오수경(2004), 「생태관광진흥을 위한 정부의 역할에 관한 연구」, 여행학연구, Vol. 19, pp. 57-78.
- 최재우(2001), 「뉴질랜드 생태관광의 효과」, 한국지역지리학회지, Vol. 7, No. 3, pp. 59-73.
- 최재우(2006), 「남태평양제도의 환경친화적 관광특성: 피지(Fiji)의 생태관광을 사례로」, 한국지역지리학회지, Vol. 12, No. 1, pp. 124-141.
- 최정수(2003), 「생태관광과 로컬 거버넌스」, 한국경제지리학회지, Vol. 6, No. 1, pp. 233-247.
- Binns, T. and E. Nel(2002), “Tourism as a Local Development Strategy in South Africa,” *The Geographical Journal*, Vol. 168, No.3, pp. 235-247.
- Boniface, B. and C. Cooper(2009a), *Worldwide Destinations: The Geography of Travel and Tourism* (5th ed.), Oxford: Butterworth-Heinemann.
- Boniface, B. and C. Cooper(2009b), *Worldwide Destinations: The Geography of Travel and Tourism: Casebook* (2nd ed.), Oxford: Butterworth-Heinemann.
- Brenner L. and H. Job(2006), “Actor-Oriented management of protected areas and ecotourism in Mexico,” *Journal of Latin American Geography*, Vol. 5, No. 2, pp. 7-27.
- Butler, R. W.(1990), “Alternative Tourism: Pious Hope or Trojan Horse?” *Journal of Travel Research*, Vol. 28, No. 3, pp. 40-45.
- Campbell, B. M., B. Sithole, P. Frost, and W. Getz(2000), “CAMPFIRE Experience in Zimbabwe,” *Science*, Vol. 287, No. 5450, pp. 42-43.
- Chase, L. C., D. R. Lee, W. D. Schulze and D. J. Anderson(1998), “Ecotourism Demand and Differential Pricing of National Park Access in Costa Rica,”

- Land Economics*, Vol. 74, No. 4, pp. 466-482.
- Department of Environmental Affairs and Tourism of the Government of South Africa(1996), "White Paper. The Development and Promotion of Tourism in South Africa," [http://scnc.ukzn.ac.za/doc/tourism/White\\_Paper.htm](http://scnc.ukzn.ac.za/doc/tourism/White_Paper.htm)
- Dzingirai, V.(2003), "CAMPFIRE Is Not for Ndebele Migrants: The Impact of Excluding Outsiders from CAMPFIRE in the Zambezi Valley, Zimbabwe," *Journal of Southern African Studies*, Vol. 29, No. 2, pp. 445-459.
- Forsyth, T.(1997), "Environmental Responsibility and Business Regulation: The Case of Sustainable Tourism," *The Geographical Journal*, Vol. 63, No. 3, pp. 270-280.
- Issacs, J. C.(2000), "The Limited Potential of Ecotourism to Contribute to Wildlife Conservation," *Wildlife Society Bulletin*, Vol. 28, No. 1, pp. 61-69.
- Jackiewicz, E. L.(2006), "Community-Centered Globalization: Modernization under Control in Rural Costa Rica," *Latin American Perspectives*, Vol. 33, No. 6, pp. 136-146.
- Paby, P., D. Clark and H. Gonzalez(1991), "Training Rural Residents ad Naturalist Guides: Evaluation of a Pilot Project in Costa Rica," *Conservation Biology*, Vol. 5. No. 4, pp. 542-546.
- Uddhammar, E.(2006), "Development, Conservation and Tourism: Conflict or Symbiosis?" *Review of International Political Economy*, Vol. 13, No. 4, pp. 656-678.
- Zeppel, H.(2006), *Indigenous ecotourism: sustainable development and management*, CABI.
- 여행사 'alltournative' 홈페이지: <http://www.alltournative.com/>

## 김희순

서울시 관악구 관악로 599 서울대학교 라틴아메리카연구소  
pritikim@gmail.com

논문투고일: 2011년 3월 15일  
심사완료일: 2011년 4월 22일  
게재확정일: 2011년 4월 29일